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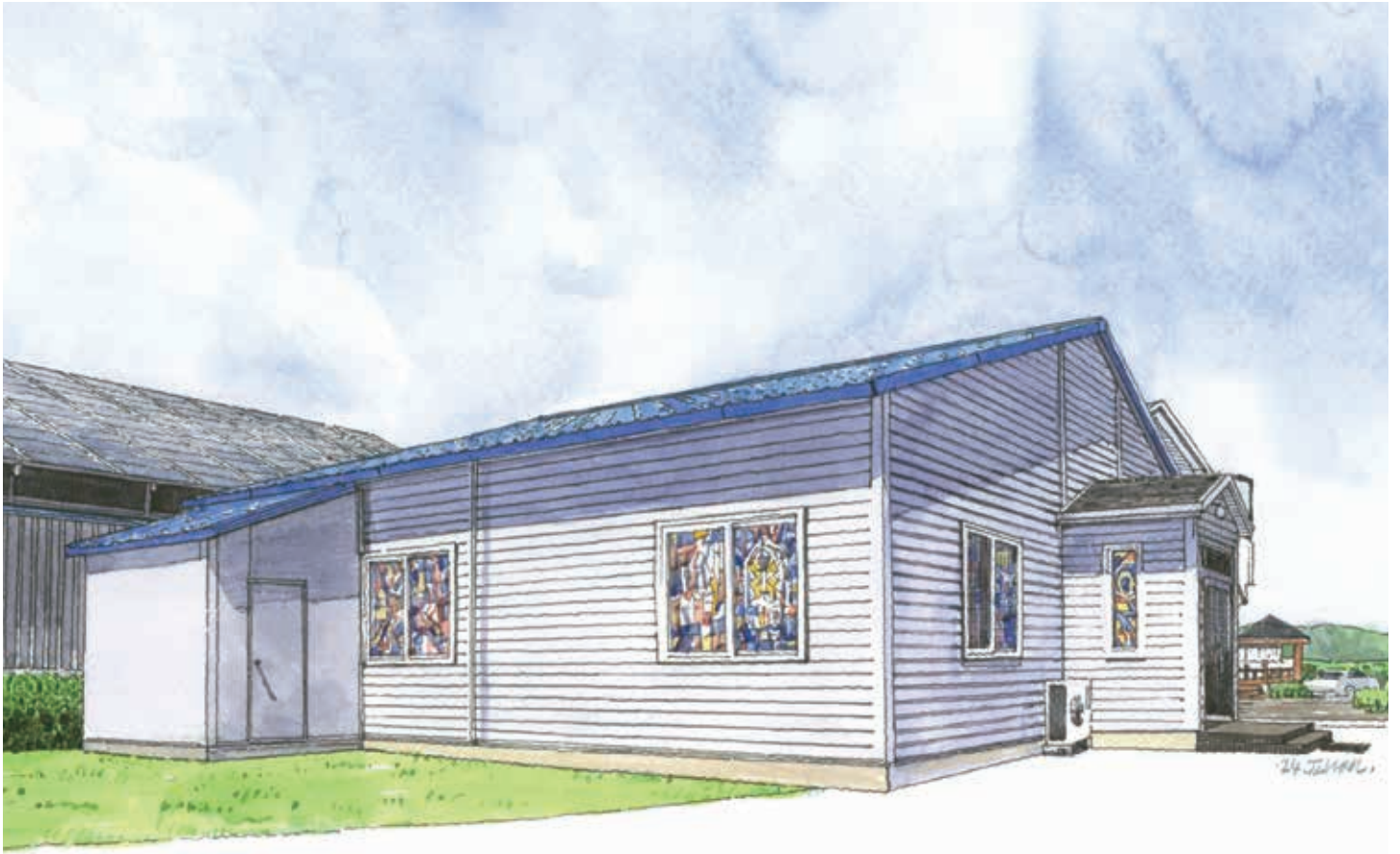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중수(제2798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초락도공소(당진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 2024년 7월 28일(나해)

제1독서 2열왕 4,42-44

화답송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에페 4,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요한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신학교 지원반 여름피정
7월 29일(월)~31일(수)
수리치골 피정의 집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손은석 마르코
노인사목 전담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주제 성구로 기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뒤 우리나라는 지나가는 사람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거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곳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나약해지는 육체와 함께 녹아내리는 찻농 같은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홀로된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자신의 존재가 녹아내려감을 체험합니다. 교황님은 담화에서 버리는 문화와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이런 노인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새것으로 바꾸는 소비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오래되면 '나쁜 것', '바뀌야 할 것', '무가치한 것',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 합니다. 소비 중심의 가치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쓰고 버려질 구멍 난 침물선을 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다의 수면 아래, 누군가 내미는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고독의 불안을 안고 침몰해 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교황님은 담화문에서 세대 간의 유대를 구축해 주라고 당부하십니다. 지면의 그림은 르누아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그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기뻐하며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춤추고, 안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힘으로 만든 집합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잠언 13, 12)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찻농처럼 아픈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남아 있는 소망의 불이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모여들어 나누고, 춤추며, 먹고, 이야기하는 기쁨! 노년기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유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나무가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몽골에서 살고 있으면 많은 분이 걱정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몽골의 추위, 음식, 언어 등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몽골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 선포하는 모습에 비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미사와 교리가 아니어도 자연스레 앉아서 하느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는 돌발에 떨어진 씨앗처럼 흘러드는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눈물을 그렁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믿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서 내심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몽골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 학비가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현시대는 특별한 기적보다도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느님의 기적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놀라운 섭리로 이들을 보살피십니다. 어떤 아이는 몽골 병원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 완쾌하였고, 사시였던 아이는 예쁜 눈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물 곳이 없던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기적 같은 도움이 신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꾸준함이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가 깨끗이 나았지만,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러 돌아왔던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를 보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몽골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제겐 크나큰 기쁨입니다.

● 노상민 토마스 신부 몽골 선교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23. 자원봉사나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해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복성 해외 여행과 명품 소비가 보람찬 휴가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휴가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국립 숲체원이 있어 과하지 않은 비용으로 숙박과 숲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연 안에서 피조물의 노래를 들으며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또한 여러 연대의 현장에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각 교구에서 삼척을 방문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거리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전교구에서는 대전시청과 세종 환경부 앞에서 거리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가 매번 모든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휴가를 이용해서 피조물의 울부짖음과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하느님의 다함 없으신 풍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려면 우리는 그 다양한 관계 안에서 피조물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63항).”

찬미밖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2024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신앙이야기와 화목한 가족사진 공모전



사랑하는 소중한 나의 가족들에게

지금 너무 마음 뿌듯하고 행복한 노인임을 새삼 느끼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희망과 소망은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님의 자녀되어 기도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성가정이 되는 것이었는데, 벌써 그러한 모습에 많이 다가가 있음을 느껴 감사함이 크단다. 또 작은 일이라도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봉사로 노력하는 너희들을 볼 때 고맙고 마음 한 편이 기쁘단다.

난 마냥 너희들을 키우느라, 또 아빠일을 돕느라 그것에 매달려 동동거리다 다 늙어 버려 이제는 힘이 좀 딸린단다. 마음은 간절하나 나의 처지가 부족해졌음을 느낀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절 손자 손녀들을 포대기에 업어 데리고 다니면서 매주 레지오도 하고 크고 작은 성당일에 나름의 열성을 다하여 힘닿는 대로 봉사했던 것 같다. 내 등에 업혀 레지오를 같이 했던 우리 손주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또 사회생활 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 또한 참 기쁘단다.

이렇듯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 모두들 소홀히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 주길 바란다. 밀알 하나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 내가 먼저 밀거름이 되는 마음으로...

또 너희 모두가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 등을 자진해서 하고, 그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전례 봉사 등 힘닿는 대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칭찬하고 격려한단다. 나를 돌아보니 이제는 좀 시간이 여유로워서 봉사하고 싶으나 힘이 받쳐 주질 않는구나. 항상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며 다가가 봉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너희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엄마는 이러한 너희들을 보며 내 기도가 허사가 아님을 느낀다. 항상 주님께 저희 가정이 작은 성소를 이룰 수 있도록, 성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드렸는데 모든 걸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흠숭드린다.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그저 모두 건강하고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빌면서 주님의 인도로 기도하며 각자에게 성경 필사본을 주었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대신한 나구나. 좀 부끄럽지만 후일 너희가 엄마 생각이 날 때 그 성경을 꺼내들 수 있다면 난 하느님 나라에서 더욱 행복하고 기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지? 모두 5번의 필사를 했던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나에겐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었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이 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하느님 말씀을 새기며 순명의 정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옆도 돌아보며 살아가 주었으면 한다. 고맙고 기쁘고 뿌듯하며 행복하단다.

들에 핀 꽃들도 돌보시는 주님께서서 하물며 아버지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하느님의 자녀답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부럽단다.

행복한 엄마가



박연숙 비비안나 / 대사동본당

대전교구 노인사목부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쓰는 편지형식(아들아, 딸아~)의 신앙이야기와 화목한 가족사진을 공모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3편과 화목한 가족사진 4점을 소개합니다.



엄마의 행복열차 탑승

사랑하는 아들 보니파스야!

네가 프랑스에 살게 되면서 떨어져 산 시간이 35년이나 흘렀구나. 어느덧 엄마도 80살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큼 될지 몰라 엄마 마음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

우리 가정은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떠올리기조차 싫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황에서 너희들이 먼 타국에서 느꼈을 절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구나. 그 와중에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남은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

같은 하늘 아래지만 각각 다른 나라에 살면서 혼자 덩그러니 울며불며 너희들도 모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엄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단다. 어느 누구도 엄마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을 때, 그동안 등을 돌렸던 성당을 찾아가 나도 모르게 성전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느님, 저 어떻게 살아요?”라고 울며 떼를 쓰며 답을 주시라고 하느님께 매달렸단다.

어느 날, 한참 울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단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던 습관이 생겨 지금도 미사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사를 드린단다.

이제는 마음속 찌꺼기를 모두 떨쳐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위령봉사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하느님 대전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감과 유가족에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고통의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엄마는 하느님을 찾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엄마가 너에게 돈이나 명예를 유산으로 줄 수는 없지만, 오직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얻은 ‘신앙체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구나. 엄마도 네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단다. 엄마가 네게 유산으로 남긴 신앙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손자인, 네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아라. 타국에서 살아가는 두 아들 대신 하느님께서 반석동본당의 많은 교우를 엄마의 자매, 아들, 딸로 맺어주셨단다. 반석동본당 교우들 사랑 속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엄마 걱정하고, 엄마는 너희들 걱정하는’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자.

아들아!

먼 훗날 엄마 보고 싶을 때, 성모님 앞에서 투정도 부리고 성모님께 기쁨도 드리는 아들이 되어다오. 네 곁에 있어 줄 수 없는 엄마 대신,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를 반겨주시는 성모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하느님께서 안전 운전하시는 ‘행복열차’에 탑승하여 천국 종착역을 향해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내 둘째 아들과 내 손자까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 가족이 하느님 안에서 만나길 기도하며~

2024년 7월, 행복한 엄마가

‘다 늙어 버린 이때에 저를 버리지 마소서’(시편 71[70],9 참조)

우리가 늙어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계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늙는다는 것은 축복의 표징입니다.

조부모들 그리고 연로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 줍시다.

“저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열린 마음과 기쁜 얼굴을 보여 줍시다. <담화 중>



담화 전문

그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오늘의 양식 말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산다고 한다. 또 꿀벌 중에서도 티비(벌의 종류)들만 사람처럼 자신들이 쓸 꿀 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 둔다. 그러다 곰한테, 체로키한테 뺏기고 마는 것을...

나는 세상 것에 대한 명예와 학벌과 더 많은 허영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도 살았다.

로사가 아프기 전까지. 나의 사랑하는 딸이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디어 울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예쁜 손녀가 태어났다. 기적처럼. 찬미와 감사의 시간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암흑에서 커다란 빛이 쏟아진 거다.

난 로사가 태어나고 기르면서 감사를 몰랐다. 주님의 선물임도 알지 못했다. 그냥 내가 낳고 기르는 나의 자식으로만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시련을 맛보고서야 주님의 은총을 알게 되었다. 너무도 아파서 주님을 알지 못해도 이 고통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일상적인 빵도 시인의 식탁에 오르면 호밀밭의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난 이제야 포도주는 들판과 뜨거운 햇빛으로 변화하듯 지금 나에게 성체성사는 달콤한 감미로움과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시은아!

난 너의 늙은 친구이지. 공놀이도 하고, 그림책도 보고, 종이접기도 하면서 참 많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자라서 넌 나에게 그네 타는 법을 알려 주었지.

내가 어릴 때 유난히 작고 어려서 나의 할머니 등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업혀 다녔으니 친구들과 하는 고무줄놀이, 그네타기들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어느 여름밤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얼음물을 가지고 가서 너에게 그네 타는 법을 배우고 흰머리를 날리며 공중에 오르던 날,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다. 이렇게 작고 어린 너에게 그네를 배우고 네가 주는 사랑을 받으며 할머니는 너무나 기쁘고 충만했지.

내가 그동안 무엇이 노예로 살았을까 생각해 본다. 항상 무거운 무언가가 짓누르고 목마르는 갈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너의 어미를 키울 땐 알지 못했다. 하느님의 눈부신 축복이, 은총이 무엇인지. 이제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하느님을 뒤늦게 보게 되었어. 무거운 짐도 벗고 타는 듯한 목마름도 없는 내 영혼의 자유!

시은이는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느끼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너에게 그네 타는 법을 배운 할머니는 지금 기쁘고 행복하다.



어머니 기일에 연도를 바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연영 아네스 / 해미본당



90세 생일에 가족들과
형제, 조카, 자손들과 함께

유범준 베드로 / 노은동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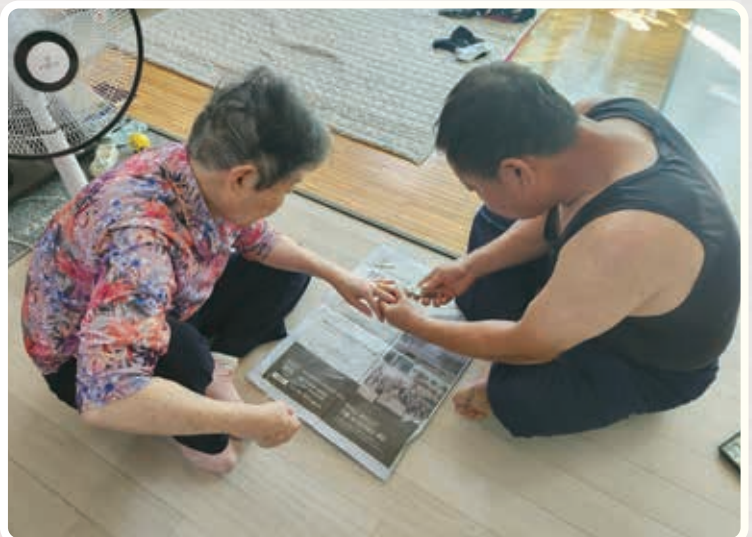
아들과 행복한 시간

김종순 막달레나 / 반석동본당



머리색이 다른 모녀 4대

김인섭 마리아 / 유성본당



7. 미사 중 성가에 대해서

미사 중 “성가(聖歌)”는 왜 중요하며,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가를 부르며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특히 미사 안에서 신자들은 하느님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고 예물을 봉헌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봉헌하고 찬양합니다. 곧, 성가는 마음을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전례 안에서 성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성가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에페 5,19).”

그렇기에 미사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봉헌하는 성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도 성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흔히 악기로 반주되는 영감을 받은 시편의 가사와 노래는 구약의 전례 거행과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지속 발전시켜 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56항).”

교리서의 내용을 풀어 설명드리자면, 노래와 음악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전례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세 가지의 기준은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 “예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회중 전원의 일치된 참여”,** 마지막으로 **“전례 거행의 장엄함”**입니다. 곧

우리가 봉헌하는 성가와 예식이 일치함으로써 거룩한 기도가 되고, 거룩한 기도는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더해지며 거룩한 전례로 드러납니다. 나아가 하느님 백성 전체를 일치하게 함으로써,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오늘날의 전례를 더욱 장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고백록에 적혀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성당에 울려 퍼지는 찬미가와 송가와 감미로운 노래들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 노래들은 제 귀로 흘러들어 제 가슴에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저는 신심의 약동으로 고양되었으며,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유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사 안에서 봉헌하는 성가는 전례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성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가는 전례와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찬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배의 기도가 된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을 기억하며, 미사 안에서 교우들과 하나 되어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성가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 올리는 합당한 찬양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성지를 걷다_합덕성당(1)

1. 교구의 말이

합덕성당은 공세리성당과 더불어 1886년 박해 이후에 내포지역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설립된 충청도 최초의 본당이다. 이후로 충청도 지역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고 약 60만 평의 농지에서 경작한 곡식으로 교구의 살림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신자들의 헌신으로 현재의 솔뫼성지, 신리성지 등 주변의 성지들이 지금과 같은 위용을 갖추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아원과 여자기숙사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복음화와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공헌해 왔다.

| 글·그림 합덕성당





교구알림

2024 대전교구 청년 공모전

- 부문(개인·단체) : 교구청년연합회로고(개인), 독후감(개인), 청년단체 우수사례(단체)
- 접수 : 9.22(주일)까지
- 방법 : 참가신청서(구글 설문) 작성 & djyouth@daum.net 공모작 제출
- 문의 : 청소년국 (042)626-6773, 카카오톡 채널 '천주교 대전교구 청년', '대전교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전담사목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청년)

- 때 : 8.25(주일) 13:00~17:0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청년, 예비부부/신혼부부
- 참가비 : 1만원/1인
- 주제 : 청춘! 사랑을 말하다
- 신청 : <http://hapum7179.godomall.com/>
- 문의 : (041)572-7179 / hapum7179@gmail.com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ME소개

- 때 : 8.4(주일) 15:00
- 곳 :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대전가톨릭문화회관 216호, 천안신부동성당
- 대상 : 혼인 2년 이상된 부부(종교 불문)
- 문의·신청 : 010-9746-0179, 010-3637-9746
- 인터넷 검색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황무실 성지 미사

- 매월 첫 토요일 (3월~11월) 오전 11시
- 우천시 본당에서 미사
- 주소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013
- 문의 : 신합덕성당 (041)362-5947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미사 기쁨의 피정

- 신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미사봉헌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
- 때 : 8.24(토) 14:30~25(주일) 16:00
- 피정비 : 1인 9만원 (2인 1실 기준)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문의 : 010-8848-5690

대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분야 : 진료과 위치 및 키오스크 안내, 공급실 물품 제작, 전례
- 자격 : 만 25세~65세 가톨릭 신자
- 활동시간 : 주 1회 이상
오전 8:00~10:00, 9:30~11:30 / 오후 1:30~3:30 중 선택
- VMS 봉사활동 등록, 진료비 및 입원비 감면 혜택
- 모집 : 8.25(주일)까지 / 방문 접수 후 면접
- 문의 : 병원 상지관 5층 자원봉사실 (042)220-9417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 : 내방, 방문 상담, www.djl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식사 생활 가능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7주년 기념

- '소원을 말해봐' 참여 및 후원방법
- 신청대상 : 대전 지역장애인
- 신청방법 : 소원신청서(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ddwelfare@hanmail.net
- 접수기간 : 8.5(월)~21(수) / 발표 : 8.28(수)
- 소원을 들어주실 후원자님 모집(전화 문의)
- 문의 : (042)637-8848, 070-7704-1169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 신입단원 모집
- 대상 : 초3~중3
- 대전반 : 매주 수 19:00
대전가톨릭문화회관 4층
- 세종반 : 매주 목 19:00
세종바오로2세성당 1층
- 문의 : 010-7921-3610

파티마 세계사도직 (썬)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8.3(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대흥동)
- 문의 : 010-4939-8688

대전가톨릭 가스펠 음악선교단 '더위드'

-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남자보컬 / 소정의 오디션 있음
- 자격 : 20~40세 천주교 신자
- 곳 : 대전가톨릭문화회관(대흥동)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7월, 8월 월례회

- 7월 월례회 하계 방학
- 8월 월례회 : 8.26(월) 14:00~16:00
대전교구청 명례방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차량운행 / 비고
기도의 밤	8.1(목) 19:00	진행 : 황인미 켄매(성령쇄신봉사회 봉사자)	지역역 2번출구 오후 6시 50분 대기 출발
치유의 밤	8.8(목) 19:00	강사 : 이선향 마리아(서울대교구 말씀봉사자)	
상설 미사	매주 화 14:00 치유 미사 / 매주 수 10:30 전구기도 미사 / 매주 토 10:30 성모신심 미사		
기타 : 8월 천안 아산지구 성령기도회는 휴회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53기내면아이치유워크숍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 대상 : 관계소통 회복 경험, 내면의 성장을 원하는 분
- 때 : 9.27(금)~29(주일) 2박3일
시작하는 날 10:30~마치는 날 18:00
- 신청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 www.holyfcac.or.kr

마리아 학교 9월학기 온라인 수강자 모집

- 때 : 9.5~2.16, 매주목,
오후 8시~10시 (6개월 과정)
- 내용 :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 33일 봉헌기도
- 신청 : 폰으로 신청함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2025학년도 양업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

- 때 : 9.2(월)~25(수)까지
- 모집 : 전국 전 지역
- 문의 : (043)260-5076
-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국악성가 한발합창단 단원모집

- 지휘 : 강수근 신부
- 연습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곳 : 둔산동 성당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 총괄실장 010-2279-0255

도림동교육센터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

- 대상 :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 dorimdongcenter.org
- 내용 : 가을 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 (문화, 봉사활동, 문학, 운동, 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 운영·영성지도 :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 / 오후스데이
- 문의 : 010-2554-1507
dorimdongcenter@gmail.com



수도회 및 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효소단식 : 8.9(금)~12(월)
-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 8.15(목)~17(토)
- 성경완독 : 8.23(금)~31(토), 9.27(금)~10.5(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모임 안내

- 때 : 전화상담 후 결정
- 곳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 문의 : (061)382-2214, 010-7159-9674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 :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
(예외 상담가능)
- 문의 : 010-3355-4997, 010-8669-6383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시간 미사

- 때 : 매월 첫 목요일 오후 7:30
- 곳 : 수리치골 성모성지(수녀원 성당)
- 문의 : 010-3253-1750

세종 메리워드 영성트락

- 품 그리기(10주간, 1:1동반)
- 사별로 인한 상처 치유 프로그램
- 자녀, 배우자, 부모 사별 /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010-3081-1816 예수수도회

웃는얼굴, 둥근마음

- 때 : 9.11(수) 15:00~12(목) 13:00
-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 8만원
-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접수 후 입금
- 문의 : 010-6791-0071(문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 일반부 : 8.2(금)~4(주일), 경남 산청 성심원
- 중고등부 : 8.6(화)~8(목), 경남 산청 성심원
- 일정 정정,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산내·성환공원 묘원
봉안(납골)담 분양 안내

- 가격 : 1인실 사용료 2,500,000원(산내)
3,500,000원(성환)
- 관리비는 20년간 500,000원
- 문의 : (044)270-3030 교구청 관리국
(041)546-7265 성환묘원 사무실



대전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면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필 형식으로, 200자 원고지 6장 또는 A4(10pt) 용지 25줄 이내로 원고 작성 후, 연락 받으실 연락처를 기입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각각 9월 29일, 12월 29일 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 지면에 실리게 되며,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대전교구청 홍보국

이메일 : tjubo@djca.kr / 문의 : (044)270-3041 홍보국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46.2°C

총 모금 462,240,417원

[7.7~13 모금액] 19,305,945원
본당 9,915,295원 / 개인·기관·행사 9,390,650원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늘봄약국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	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울리오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13 스페인 남부,루르드,파티마 485만원 8/26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 발틱3, 폴란드 490만원 신청 및 문의 T. (02)2281-9070

조반니 디 파올로의 천지창조와 낙원 추방



조반니 디 파올로, 천지창조와 낙원 추방, 1445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그라치아의 조반니 디 파올로(Giovanni di Paolo di Grazia, 1403-1482년)는 주로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활동한 화가이다. 그는 단테의 글을 비롯한 필사본의 화가이자 삽화가였고, 15세기 시에나파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하나였다.

조반니 디 파올로는 1445년에 ‘천지창조와 낙원 추방 (La Creazione e la Cacciata dal Paradiso)’이라는 작품을 그렸다. 원래 이 작품은 시에나에 있는 성 도미니코 성당에 설치된 제대의 최상단 일부이다.

화가는 이 그림의 왼쪽 부분에 하느님께서 12명의 케루빔에 의해 지지가 되고, 후광에서 분출되는 황금빛 광선은 하느님의 의지를 갖는 힘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인류의 선조를 가리키고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원형 지구본을 묘사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우주론에 관한 중세적 관점이다. 지구본 핵에는 7개의 원-행성으로 둘러싸인 4가지 요소인 물, 공기, 흙, 불이 있다. 지구본 중심의 황색의 지구는 흙이며,

그 땅을 감싸고 있는 연초록색은 물을 상징한다. 지구를 감싸는 붉은색 링은 불이고, 그 뒤의 푸른색 링은 공기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황도대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물리적인 세계와 하느님이 머무는 천공을 나누는 최초의 모빌이다.

그리고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꽃이 만발한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이브가 천사에게 쫓겨나고 있다. 황금 열매를 맺는 일곱 그루의 나무가 있는 배경과 오른쪽 아래로 산에서 내려와 계속 흘러가는 낙원의 4개의 강이 있는 무대 앞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4대 복음서를 상징하며, 이는 인간을 구원

할 네 가지 덕을 가리킨다. 왼쪽과 오른쪽 부분과의 관계는 안과 밖, 용기와 내용물 사이의 특별한 연속성을 가지면서, 오른쪽 장면은 왼쪽의 합성 도식과 비교해 확대경으로 본 장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이 그림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점이 있다. 하느님의 오른손이 가리키는 황도12궁은 12시인 양자리(3월 21일~4월 19일)와 13시의 황소자리(4월 20일~5월 20일) 중간이다. 이 기간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조반니 디 파올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발생한 인간의 원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육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 줌과 동시에, 우리도 이 신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겸 솔미 교구역사관 관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 낼 우리의 이야기

사랑은 늘 미안하다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용태 신부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복음의 자리를 좇으며 세상을 향해 전하는 이웃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삶이 팍팍한 오늘날, 이웃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김용태 신부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느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그 해결 방안을 진심 어린 문장에 담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김용태 신부 지음 / 생활성서사 펴냄

청년성서 99차 마태오 연수



청년성서 전담사 목부(전담 김용우 신부) 주관으로 7월 6일(토)~7(주일), 12일(금)~14일(주일) 대철회관에서 73명의 연수생과 8명의

봉사자가 함께한 가운데 마태오 연수가 있었다.

대전교구 청년성서 마태오 연수 역사상 가장 많은 연수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경의 권수와 같은 73명의 연수생 모두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기쁘고 진지하게 연수에 참여했다. 김재덕 신부의 열성적인 강의와 모둠별 진솔한 나눔 그리고 봉사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관평동본당 위령 기도 대회



관평동본당(주임 정우석 신부)은 위령분과 주관으로 '구역별' 위령 기도 대회를 7월 5일(금)에 개최했다.

이날 위령 기도 대회에는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250여 명의 구역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에 1등의 영예를 가져간 16구역은 참석 인원도 많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민동본당 업사이클링 교육



전민동본당(주임 변윤철 신부)은 초중고 자모회 4간부와 학년 대표를 대상으로 6월 29일(토) 업사이클링 교육을 했다.

천안성정동본당 교리교사 오인희 아나스타샤 자매를 1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었다.

이날 양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중 하나인 양말목을 재료로 새로운 공예품인 사각 받침대와 안마 봉을 만들었다.

폐기물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하나라도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말자.'라는 생각과 실천이 있어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사랑의 밥 한끼 100원 나눔운동 기부금' 전달식



키다리식품(주)는 7월 17일(수) 정안알밤(상)휴게소에서 천주교 대전교구에 '사랑의 밥 한끼 100원 나눔운동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총대리 한정현 주교와 청소년국 조수환 국장신부, 키다리식품(주) 이명수 아벨 대표가 참석했으며, 정안알밤(상·하)휴게소에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금한 53,999,800원이 전달됐다.

대전교구 청소년국(재단법인 대철청소년회)은 기부금을 결손가정, 불우이웃, 다문화가정과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정서적·경제적 지원과 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다.

노은동본당 레지오 마리아 단원 교육



노은동본당(주임 김유정 신부)은 7월 3일(수) 레지오 마리아 전체 단원 교육을 레지오 시범 주회 영상 시청과 주임 신부의 강의로 진행했다.

주임 신부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인용하여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레지오 단원으로서 행하는 기도와 활동이 이를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은 단원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덕본당 찾아가는 음악회-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합덕본당(주임 강진영 신부)은 7월 14일(주일) 교중 미사 후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했다.

본당 신자들과 타본당에서 방문한 신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본당 여성분과에서 준비한 점심식사 후에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한여름의 더위에서 잠시 힐링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